

문현1구역 재개발 관련 ‘원포인트’ 임사회 열어

남구의회 제317회 임사회

남구의회(의장 박미순)는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루 일정의 제317회 원포인트 임사회를 열었다. 이번 임사회는 일정에 없던 것으로 위 안전은 제302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안전으로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제2호의2 개정(2022.12.11. 시행)으로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는 사항과 2022년 제7회 市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사항에 대해 남구의회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4월 18일 16시 제316회 남구의회 임사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경제복지 도시위원회(위원장 김철현)에선 재개발 정비계획 관련 의견청취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 연이



어 개최된 제317회 남구의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전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하였다.

의안명	처리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돕는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지원하세요

임기 2년... 5년 범위 내 연장
원서접수 4월 24일~5월 12일

남구의회(의장 박미순)는 4월 24일부터 일반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을 진행한다. 구의원들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정 질의서 작성,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의정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임기는 2년 이고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13일 시행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는데 남구의회의 의원 정수는 13명으로 지난해 3명의 일반직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3명을 일반임기제 공무원(7급상당)으로 채

용한다.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응시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24일~5월 12일(방문 및 우편, 남구의회 의정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5월 20일 전후(남구의회 홈페이지), 면접은 5월 26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 31일 예정이다.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공직사항)의 ‘2023년 제1회 남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참고하거나 남구의회 의정팀(☎051-607-6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의회-남구의회 교류행사 후 가진 기념촬영. 남구의회 박미순(앞줄 중앙 붉은 자켓) 의장과 남원시의회 전평기(앞줄 중앙 붉은 넥타이) 의장.

남구의회, 자매도시 남원시의회와 상생발전 논의

남구의회 19명 방문

남구의회(의장 박미순)는 지난 4월 25일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시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를 방문했다. 박미순 의장을 비롯한 19명의 남구의회 방문단은 남

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 교류 행사를 갖고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국악의 성지와 관광투원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 탐방에 나섰다.

남구의회 박미순 의장은 “영호남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남원시의회와의 교류행사가 다시 재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며, “지

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희망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남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양 의회간의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발전과 각 지역이 가진 특색있는 정책을 주민생활에 접목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힘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남구의회와 전라북도 남원시의회는 2011년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남구의회, 남구노인복지관 「공·동프로젝트」 사업성과 간담회 개최

남구의회(의장 박미순)는 지난 21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남구 노인복지관 주최로 진행된 ‘치매 친화적 남구 만들기’ 사업인 「공·동프로젝트(공감하여 동행하다)」 사업성과 공유 간담회에 참석했다.

「공·동프로젝트(공감하여 동행하다)」란 남구노인복지관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치매에 대해 공감하는 남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동행단’을 조직하고, 치매 친화적 남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개최된 공감 토크쇼 사업 결과를 남구의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

며 남구의회에선 서성부, 김근우 의원이 참여하였고, 구청 관계자 및 공·동프로젝트 관계자 등 총 11인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신상진 동행단 단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사회 주민의 동참과 남구의회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의원 및 구청 관계자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매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2023년도 남구의회 의회교실 운영

학생 대상 의회민주주의 체험

남구의회(의장 박미순)는 오는 5월부터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남구의회 의회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의회 의회교실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친숙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2005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별로 지방의회의장과 위원장, 의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의 결과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오는 5월 24일 연포초등학교(대연동 소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박미순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미래 남구 공동체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만나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며, 학생들이 의회교실 참여를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바라며 기쁜 뜻을 전했다.

남구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누구나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 의회사무국(☎ 607-6521~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투명성·책임성 강화

남구의회(의장 박미순)는 14일 학계·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5명의 자문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 의무화되었으며, 지방의원 겸직과 영리행위, 의원윤리강령 준수여부와 징계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김영수 전 남구의회 사무국장, 황미영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무생 동아대학교 교수, 이상현 변호사, 정대식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5명이며, 위원장으로 김영수 전 남구의회 사무국장이 선임되었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미순 의장은 “구민이 기대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미향 윤리특별위원회장은 “신뢰받는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출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투명한 의정활동 통해 탄탄한 의회상 정립